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購讀料 一個月 八拾錢 (郵稅共) 六個月 四圓六拾錢 一個年 九圓 廣告料 五號活字 一行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堅志洞 朝鮮日報社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社說

日本政局은如何?

一

現下日本政局은 政憲兩派間에「協調持續이냐」「開戰이냐」하는物議를中心으로하고잇다 重疊한暗雲이 자못縱橫低迴하고잇다 그리하야 田中總裁推戴以來政界의新局面打開를엿보고잇는政友會에는最近에이미黨議가分裂하야거의混沌狀態에빠저잇다 大體上으로協調를抛棄하고 新局面을打開하겟다는것이 黨의輿論으로볼수잇지만은 이러한主張的急進派는 大槪血氣가旺盛한少壯派를中心으로하고 策動하야 저들의盛히標榜하는積極政策을 實行함에는 加藤首相의手腕에依하야 到底히實現될수업스니 차라리이機會에 現內閣을覆倒하고政權獲得을夢想하는者이오 그다음幹部派는隱忍自重의態度를取하야 所謂積極的政策의重要項目인 稅制整理問題에잇서 地稅 營業稅의地方委讓으로써 協調破棄의口實을作함이 果然黨略上得策일가아닐가함에顧慮하야 可及的正面衝突을避하고저하는者이다

二

이와가티 政友會內部에서 和戰兩派가軋轢하는反面에 協調를基盤으로한加藤內閣은 그만큼不安動搖를感하고잇슬것은必然한勢論이다 그럼으로憲政會는 單獨內閣의準備잇는黨議의統一을圖하며 一面으로는 政友會의積極的政策으로써의挑戰에對한行動을決定하고잇지아니할수업거니와唯一의在野黨인 政友本黨은 政友會와의 合同說이頻頻히風傳되는터이나 그것은好事政客等의 徒勞에不過하게되고 最近에至하야는 도로혀政友會의政權熱에焦燥하는態度를冷笑하는同時에 憲政會單獨內閣의實現을暗暗裡에 希望하고잇다 그것은本黨自體로말하면 協調의破裂은勿論自黨에有利할뿐아니라 單獨內閣이成立되면 그壽命이길지못할것이오 만일 現內閣이瓦解되면 順序上으로 第二黨인自黨에政權이도라오게되는外닭이다

三

前述함과如히 政憲兩派의協調가 危機에陷하게되믈따러如何한時期에 如何한波瀾을惹起하게될는지 미리推斷하기困難하거니와 그波瀾의暗礁는即那邊에 伏在하엿는가 그것은普選實施後 一期로하야 新有權者에게 迎合하기爲하야 各政黨에 新政綱 新政策의標榜을 爭先汲汲하는中 一般으로社會政策的色彩가 濃厚한것은各政黨의共通되는바이니 一一히指摘할必要가無하거니와 그가온대가장重要視되는바는 財政政策에잇서 憲政會의消極策과 政友會의積極策과의衝突이라할것이니 지금政友會는地稅營業稅를 地方에委讓하야 地方負擔을 輕減케하는것으로써財政緊縮整理의實을擧코자함에反하야 憲政會는 積極的政策의危險性을認定하는同時에可及的範圍內에서 消極的또漸進的으로財政整理의一面인稅制를整理코자한다

■ 그런데 政友會가積極策을標榜하는것은 그黨略上으로當然한바이지만은 大膽히兩稅委讓論을 主張하기에이른動機로말하면 前述함과가티新局面打開의口實의案出에腐心한結果라해도過言이아닐것이다 그러나政友會自體가 協調破裂外지를賭하고 强硬히主張하기困難한여러가지理由가잇스나첫재 護憲內閣當時에聲明한 信義를抛棄함으로써 信望이失墜될것을疑懼함이오 둘재는이와가티危險한積極策을確執하는것이 果然黨의將來를爲하야得策이될가함에 스사로確實한自信이업는故로 今後에더욱慎重考慮를要할바인가하다 그러고 憲政會도 政友會와의協調를保全하기에努力할것은 不可避의事實이다 그것은政本合同說이壓伏될뿐아니라 絕對多數를占치못한現象에서는 次回의普通選擧에는 그地盤이動搖될憂慮가잇는所以이다 要컨대日本政局은今後더욱政憲兩派의暗鬪가不絶하게될것은事實인바 問題의焦點은 政本合同問題와 稅制整理問題의收拾如何에잇슬것이다

廣東의示威行列
學生、勞働者參加擧行

(廣東三十日發) 廣東示威運動은學生勞働者가參加하야擧行되엿다 群衆은二十三日事件의犧牲者를收容한棺을메이고鮮血이무든着衣를揭揚하고租界外를一周할計劃이잇섯스나政府가不許하고또그父兄等이此를阻止하기때문에그것은中止되엿다

澳門占領을計劃乎
廣東政府軍隊集中說

(廣東一日發) 廣東政府는葡萄牙領인澳門을占領할意가잇는것가타야 許崇智軍約二千名을國境에集中하엿다고傳함으로在港中인葡萄牙軍艦는同地로急航하엿다 또葡萄牙本國으로부터軍艦二隻及陸戰隊를急派하야不遠中에澳門에到着될터이라더라

單獨行爲는彼此不利
日米兩國의對中意見

(東京電) 中國時局問題에關한米國의態度는單獨行動을取하리라는風說도잇섯스나三十日午後에 幣原外相과新任駐中公使「막크마레-」氏와의會見에依하야日米兩國의對中意見은一致되야米國이나日本이나中國의現狀을安定식히기爲하여서는彼此單獨的行動을하여서는그效果가업슬것이라하고時局安定과在留外人等의不安의念을一掃할手段을取할事가兩國焦眉의急務로認한다고一致된모양이더라

魏公使强制署名
在巴里中國人의强要로

(쏄도無線三十日發) 在巴里中國公使館의中國人闖入事件과가튼貌樣으로今般에伯林中國公使館에도中國人이多數히闖入하야公使魏宸組氏를强要하야暴行으로써 徐樹錚氏는 何等現狀에「쿠-데타-」를이르킬意思가無한旨及決코祖國의不利한行動을取치안을旨의聲明書에署名을식혓다더라

主權制限이必要하다
英紙의對中論調

(쏄도無線三十日發) 倫敦「데일리、텔레그라프」紙는社說로英國政府는領事裁判權을撤回키不能하다는旨로急히回答할것이아니라고述하고更히日本政府나米國政府도不遠中에開催될會議에서英國政府와한께中國의主權을制限하여둘必要를諒解하고잇스리라고附言하엿더라

佛國의新公債
細目도未久發表

(쏄도無線三十日發) 巴里의「파리데아레-」詳報에依하면佛財政長官「카이요-」氏는三十日에各銀行代表者를招集하야公債發行에關한協議를하엿는데그協議에서決定된것을實現할機關을組織하고國防公債를新公債에變更할涉日의方法은本週末에公表될모양이더라

對露借款을拒絶
緊張되여가는英露關係

(나우엔發) 英露兩國外交關係가緊張되는外닭에英國銀行은政局의進展을待하고서露國工場의借款에應할事를拒絶하엿더라

一千萬磅提供
化學硏究費로

(나우엔發) 諾威前首相「미겔센」氏는全財産一千萬磅을化學硏究費로提供하엿더라

衝突頻頻한 政友會幹部

(東京電) 政友會는近來現政局에對한幹部間意見이不一하고또政策及政本合同의意見도不合하야幹部間에衝突이頻發하는데過般에岡崎邦輔氏와小泉策太郞氏는政策問題로激論하고又去三十日에는本部에서劍道四段의某幹事가同僚와激論한結果鐵扇으로强打하야前齒數個를打折한外닭에鮮血中에昏倒하엿슴으로方今某病院에서秘密中에治療하는事實이잇는데同會는此를極秘密에附하나此에依하야會內의暗鬪가深刻한것은察知하겟다더라

全州警察이 言論界를威脅!
全北記者團이對應策을講究

全州警察署高等係主任三拔警部補는지난二十六日午後二時에朝鮮日報全州支局記者金東鮮氏를突然呼出하야過般全州에서開催한全北記者大會經過狀況을本報紙上에報道中大會第一日에正服한三拔警部補는威嚴을失한態度로小節의禮儀도莫치아니하고開會場을巡行함에一般會員은不滿을가젓든바警部補가大會에何等關係도업시傍聽人을任意與逐함으로大會에서는여러가지로質問한바大會와 傍聽人 은關係가 업스니逐出하엿다는答辯을함으로그와가티沒常識의警官과는是非할價値가업다는意決로마치엇다는事實에對하야警官이當然取締한것을그와가티報道하엿스나該長의게오히려相當한取締를하엿다는稱賛을바엇스니 秋毫도忌憚할것은아니로대그와가티警官에게反抗을하면當場留置場에다집어너흘수잇다는脅威하는言辭로威脅이甚하야 그러한絕代抑由로留置한다는것을秋毫도두려워할것업스니마음대로하라고彼此興奮한論難이約三時間에亘하얏後幾日이못되야留置場에너흘事件을 調査中 이니 그리알고나가라고하엿다는바이많음으로全北記者團에서는우리言論界에對한侮辱이니그대로看過할수업다하야同執行委員會의來月例會(七月五日)에附議하야相當한對應策을講究키로하엿다더라(裡里)

課長、校長을 辭職勸告
順天普校移轉問題

全南順天郡順天面普通學校移轉에對하야問題가生하엿다함은累報한바어니와該問題를解結키爲하야市民大會를組織하고常設機關으로委員六人을選定하야當局에交涉事項을委任하엿슴으로該委員들은學校基地를北便으로移轉하기를郡當局과道當局에交涉하기를數回에至하나 郡當局과 校長은 內應이 되야이미南便으로指定되여南門에基地를買收코저腐心中이라함으로北便을主張하던多數人民側에서는當局으로서民衆의意見을넘우侮視하고民衆과非妥協主義를恣行한다하야그러한當局에게우리全南二百餘學校의幾十萬學生의敎育權을一時라도委任하기가매우危殆하다하야今番에는警察府에까지라도陳情을하야 自己네들의 目的을 貫徹코저去二十八日午後一時頃에當地東門外奐仙亭에서市民大會를開催하고該長洪永基氏의司會下에會務를進行하야委員代表金鍾南氏의條理잇는前後交涉顚末報告가잇섯스며委員趙亮璦氏의當局者의態度에對한論駁이잇섯고各町村代表의意見이잇슨後決議事項으로드러가左記와가티決議하엿다더라

一、學務課長 三浦斧吉氏에게 辭職勸告를할事

一、順天面普校長 三浦助氏에게不信任案을提出할事

一、朝鮮文新聞에는應當報道하려니와日文新聞中光州日報와京城日報에도發表할事

一、總督府에도本陳情을하야現學校를他處로移轉치말게할事

一、總督府陳情書에는各個人의捺印을要할事(順天)

「事實이면問題」
日本御紋章事件

(東京電) 京城日領事館의菊花御紋章을毁損하엿다는報에對하여서는何等報告가無하나果然此가事實이라하면重大한問題임으로外務省은同問題에對하는態度를攷究하엿더라

辭令

(東京電) 一日에左와如히發表되엿다

任朝鮮總督府判事(六等) 靑木順一

會員紛糾問題로 緊急總會開催

咸南利原郡東面에잇는大成勞働會에는去二十六日午後一時에會長李完實氏司會로緊急總會를通明學校講堂에서開하고會員紛糾의件에對하야여러가지로長時間을協議하엿스나圓滿한解決策을求치못하고閉會하얏다더라(利原)

南浦에서도援金募送?
黃氏急遽歸國

上海港을中心으로全中國에蜂起한大罷業의報가한번天下에傳하게되자當地에在住하는五百餘中國人들은俄然緊張된氣分을띄고隱然히該民族의壯擧의成功을心祝하야마지아니하더니去二十八日午後에는時期가時期임에도不拘하고當地中國人商總會長黃克忠氏가急遽히歸國의途에就하엿는데이에對하야某消息通의傳하는바에依하면氏는歸國前五六日前에北京華商總會로부터온罷業資金調達에對한緊急通牒을接하고連日夜로奔走하야當地某中國人側巨頭들도더부러該通牒에對한善後策을協議한結果罷業資金은沒理解한當地日本人官憲의曲解를買하야居留民安住上에不安이잇슬가하야直接手段의絕對秘密策을取하기爲하야俄然歸國한것이라는데詳細한內容도絕對秘密에부침으로知키難하다더라(鎭南浦)

死巷에陷한 同胞를爲하야
兩氏活動으로救濟

江華郡吉祥面에는昨年天災로因하야今春以來로饑饉에陷한同胞의戶數가百九十戶、人口가三百八十四人에至하는바飢餓가日日切迫하야不忍見의慘狀임으로面內有志尹斗赦南宮模兩氏의活動으로金健哲氏外百餘有志의同情을募集하야去六月十二日부터該面所內에서救濟米配付에着手하야每人日에唐米七升과白米一升式을分配하엿는데貧民은勿論一般은前記兩氏의熱誠을稱頌한다하며同情有志의芳名及金額은左와如하다더라(江華)

林元澤 金永熙 黃寬佑 趙璣云 金瓚福 李仲均 金榮同 姜在欽 崔英基 愼宗漢 具德希 尹奎炳 許潤 趙鍾基 黃有富 張興煥 金鳳基 劉仁鍊 金濟玉 金德默 金松學 李浩永 趙來奎 金德歡 劉漢卿、鄭富岩 李根英 金先俊 趙性能 長澤當 全桂寶汝 金相俊 徐取華 全元吉 黃啓明 權秉學 嚴弁漢 咸仲淳 嚴三浩 李愼浩 權根李 張奇賢各一圓 黃聚山 金明涂 李仁浩各一圓五十錢 金永數 金鳳振 金永輝、無名氏 黃明顯 文淳基 梁國化 孔文弘 梁順五 金在浩 史豐淳 金福山 金宗鶴 李淳俊 史相濂 曹相雨 方然 趙相永 趙根俊 金容實 劉永兩各二圓 金龍濟 趙成俊 金鍾賢 梁斗必 趙周元 各三圓 無名氏 趙景天 張南振 趙南奎、各四圓 溫水里警官駐在所一同 四圓五十錢 韓述洙 二圓五十錢 金永俊 南宮楔 金顯廷 金寶植 金鳳鉉 金滋鎬 張久伯 金尙根 金濟浩 李昌奎 洪鍾球 洪鍾益 梁七各五圓 金健哲 張錫賢 洪在顯 沈淸澤 趙顯前 李會 金貴獻 各十圓 吉祥面職員一同 十五圓 佛隆寺十五圓七十六錢 金容煥 唐米五석 白米一八○升 金濟淳 二十圓 金濟東 五十圓 現金合 三七八圓八十六錢 唐米三一三升 白米一八○升(江華)

慶州에救濟劇

金昌煥一行의同情으로

慶州郡內南面外數面은水災로因하야同地住民全部가먹을것이업서서困境에陷하얏다함은本報에累次報道한바와갓거니와慶州普校에서는前記罹災民의救濟方針을講究中마츰巡廻하든朝鮮劇團金昌煥一行이去二十一、二兩日間市鄕施設假設劇場에서興行한結果實費義捐金을合하야二百四十餘圓의收入이되얏다는데費用金百十圓을除하고는全部救濟事業에用하리라는데義捐한諸氏는左와如하다더라

金石鳳 白樂鎭 各五圓 崔商鳳 金桂仙 各二圓 崔宗煥 三圓 梁山白鋪組合運轉手 一同 五圓 (以下略)(慶州)

否認問責決議
密陽青年會에서
◇青總任員否認問題

去二十八日午後四時密陽青年會執行委員會를開하고青總委員選擧回答에對하야左와如히決議하엿더라

一、本青年會는已往青總委員選擧에對하야銓衡委員에委任하라는總現執行委員會의委員選擧에對하야根本的으로此에反對하고또한그方法까지否認한以上이즉現時그銓衡委員이選擧한執行委員과銓衡委員外지를全部否認함일

二、銓衡委員을選擧하야委員을選擧하겟다는可否問議에對하야아니라는決議와反對하는團體의數字를明白히表示치아니함에對하야青總委員에對하야 [illegible]

三、現青總委員의不法行爲임에不拘하고指名을當하얏다고銓衡委員으로自處하야執行委員을選擧한者는勿論現在의青總委員과同情의排斥을하고此에候選되얏다고將來에執行委員으로서青總에臨하는者가有하면此를斷然排斥할일

四、現青總執行委員들의從來의各行爲(現山說明書)에鑑하야此等의者들은將來朝鮮青年運動及其他各社會運動을攪亂又는妨害者로認做하고此輩의分子를永久히青總으로부터排斥케하고方策을硏究하야地方에잇는各團體와互相聯絡하야執行委員을選擧하고現青總委員을驅逐하기로함(密陽)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 以內 要 住所氏名明記

原州女子公普後 援會當局者에게

◇原州女子公普校後援會當局者諸君들아! 今般君等의主催로同校備品代를原州各社會에서負擔하도록善後策을講究한것은참으로반가운일이다 우리朝鮮에서天真爛熳히뛰여노는 어린이들의敎育機關을爲하야盡力하는것이야말로 筆者亦是그에共鳴하는바이다 그러나諸君들의同時에決議한中에 아즉도 [illegible] 衡平社員의한사람으로서 又는 [illegible] 게一言으로써忠告치안코는견될수업다

◇諸君아! 五百餘年동안厭迫과拘束은不合理에눌너서나려오든우리社員으로서 階級打破의旗를올니며 侮辱의稱號廢止互相融合親睦의旗幟를날리어저우일어나라하는것을君들은不知하는가? 萬一君들이人類愛가잇다하면그歡迎하여우리社員을擁護하여주며衡平의鍾聲을들녀주어야할것은 當然한君들의 正道가아니될가?

◇그런데在學生一人에게 貧寒子、姪園式負擔하는중은 中止하고 이만라는美名下에서 七百五十圓備品代(金額)의約二分之一을貧窮한우리社員一十餘名에게는 [illegible] 은搾取하는手段이아니고무엇이라? 萬一그것이搾取하는것이아니라하면 [illegible] 四十萬大衆의敵이요惡魔이다 더욱우리社員側에서不應하면그는 [illegible] 우리社員으로서到底히歡過할수업슬것이다

◇然이나衡平社員에게는備品代를負擔식히지말나는것은決斷코아니다 다른生徒들과가티資産程度를따러負擔하거나又는平均으로負擔하는等同一한方法을取하지안코면아니될것은當然한理致라함니다 또는萬一우리社員中에富裕한者만잇다하면그는七百五十圓은姑舍하고七萬五千圓이라도우리子女敎育을爲하야應分負擔할義務이겟스나衡平社員亦是 넉넉지못한生活을하여가는것은 諸君도共知함이아니인가

◇諸君들아! 筆者는諸君들의아즉도罪지못하고녯적兩班의頭腦가아즉도消滅되지못한것을불상히녁이는바이다 [illegible] 等을부르지즈며諸君들의動機하라고諸君들의經學을警戒한다(橫城步笑)

裡面에黑幕潛在?
各團體가蹶起活動
高原兩團體看板盜失事件

高原郡에서郡民大會執行委員部看板과朝鮮日報支局看板을盜失함에對하야重要各團體와言論機關에서는이事件發生顚末을徹底히調査하야秋毫도遺憾이업시處置할터이라는데第一着으로看板을 [illegible] 가아니고官邊의어떤者와與論體의敎唆를바다가지고 [illegible] (高原)

東亞報記事로 釜山住民奮起

今年六月二十九日東亞日報第一千七百六十六號三面第一段「內市化하는釜山」이라는題下의記事中「釜山鎭一帶로朝鮮人집이라」는云云의文句는全然無根의妄說인同時에釜山人에對한一大侮辱이라하야釜山鎭俱樂部에서는臨時總會를열고下와如한決議를하엿다더라

◇決議文

一、東亞日報는該妄筆에對한謝由와該誹謗文을本俱樂部에提出하는同時에同文의謝罪廣告를大正十四年七月十日以內로朝鮮日報東亞日報時代日報每日申報의各紙上에百行以上으로發表할일

二、東亞日報社는該妄筆을弄絡하는釜山支局의責任者를罷免할일

三、以上各項에不應하는時는本俱樂部는釜山鎭住民을代表하야東亞日報를排斥하는同時에非買同盟을斷行하야被反追加할일

四、以上各項을實行키爲하야執行委員을如左히選定함

金有鎭 趙在涉 洪在鎭 田性變 崔天洙 李興龍

釜山鎭住民이東亞日報記事에憤起하엿다함은別報한바와갓거니와去三十日午前十時에釜山鎭俱樂部代表者諸氏는東亞日報釜山支局에가서支局長과面會하고該記事에對하야여러가지로詰問한바記者一名은不得已犧牲식히겟스나各新聞에謝罪狀을發表하라는것은七月七日外지回答하겟다하기로七月七日外지기다리기로하고歸還하엿다더라(釜山)

金堤衡青會에 解散命令
會員은絕對反抗

全北金堤衡平青年會는創立以來有耶無耶中에잇슴으로一般會員들은痛惜히여이든바去二十四日에臨時總會를開催하고宣言、綱領及規約을通過하고任員을選擧하야復活되엿다함은既報와如하거니와지난二十九日에突然히金堤署高等係에서는同委員趙良泰氏外數人을同署에呼出하야理由니今日로곳解散하라고하야同委員들은우리는몃사람으로本會의解散與否를말할수업스니臨時總會를開催하야全會員의決議를어더야되겟다고하고나와緊急總會를同日午後九時에金堤衡平會社內에서開催하고本會가何等秘密結社가아닌以上解散할아무理由가업스니그대로會務를繼續하야나가자고決議한後警察의無法無理를痛罵하고同十一時에閉會하엿다는데同青年會와警察署間問題는 [illegible]

江西市場 移轉期成會
多數有志가組織

江西市場은邑部中央에在하야交通便利한外닭으로東西가不絶하며米穀의集散이不少하되但市場이狹窄하야不便이莫甚한狀態인바아니라將來의發展性이全無함으로市民의非難이만흐나甚한關係로容易히實行치못하엿는데今番에는附近人士의同情과當業者의誠勤으로將來가有望한데移轉에對한모든일을具體的으로進行하기爲하야市場移轉期成會를組織하고部署와規則을制定하고事務를各分擔하엿는데그任員과部署는如左하다고(江西)

會長朴鍾鈹 副會長宋昌獻 幹事 總務秀洙 金基舜 期成會規則作成委員 崔昌億 金基昌 金基舜 李鍾元 總務部朴鍾鈹 宋昌獻 李廷斗 會計部宋 [illegible] 當局交涉部朴昇洛 崔昌億 金基昌 金基舜 鄭秀洙 設計部李鍾元 金奭昌 趙錫祚 宋昌獻 裵錫 金聚集部朴鍾鈹 金昌龍 吳夢俊 李廷斗 趙錫祚 崔用根 金東雲 金官雨 金大錫 顧問金義善 吳夢俊 李仁坤 洪鍾淑 朴益援 安錫洛 金連杰 李秉植

陝川青年總會
任員을改選

六月二十七日午後三時陝川青年會館에서同會臨時總會를開하엿는데同會執行委員長李民佐氏의開會辭로會를始하야今年度豫算通過와新任委員의發表가잇고同午後四時에閉會하엿다더라(草溪)

執行委員趙在天 朴升伸 姜元淑

全州女子青年會
二十八日에創立

全州一般社會의有志女子側에서는當地에相當한女性團體가無함을慨歎하든바지난二十八日午後二時부터李明信女史의發起로金雲英女史、柳賛敬女史外多數女子가靑年會館內에會合하야全州女子靑年會創立總會를開催하고宣言으로비롯하야李明信女史의經過報告가잇슨後에臨時議長은柳賛敬女史가被選되자卽時規約을通過하고綱領은左記와如히作定하엿는데決議事項으로는「婦人問題講座」의先着事業으로 [illegible] 同六時頃에至하야閉會하엿는데더욱一般家庭婦人은多數入會를希望하다는바會의綱領은下와갓다더라

◇綱領

一、我等은女性解放運動의前衛가되는同時에經濟的으로自立하기를期함

一、我等은女性의智的敎養과科學思想普及에注力하야生活의向上을圖하며當面의모든問題를爲하야努力하기를期함

◇委員

代表委員孫仁敬 庶務部孫仁敬 崔正順 敎育部李春伊 宋明子 社會部柳賛敬 李明信 家庭部金雲英 張守敬女史(全州)

記者團奮起
兩新聞支局威脅事件으로

群山穀物共鋤組合幹部趙容寬氏毆打事件에對하야同組合에서는前記趙容寬氏를擁護하야群山時代、朝鮮兩新聞支局에서威脅과罵詈雜言을하지못한事實이잇섯다는데이말을드른全北記者團에서는緊急委員會를去二十五日午後二時에裡里本社에서開하고該件에對하야紛紛한討議가잇슨後林普植金翰兩氏를實地調査委員으로選定하야即時群山에派送하야群山穀物組合長車周相氏外各任員에게前後事實을質問하고言論機關에對하야此後如斯한行動이업도록注意를식혓다더라(全州)

長城青年委員會

全南長城青年會에서는去二十八日午後九時에執行委員會를開催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고議事會의承認을得하얏다더라(長城)

一、女子夜學部設置의件 授業料十錢 科目 算術 朝鮮語 日語 家庭學 敎員 姜洪基 柳寅秀 朴聖鍾 鄭東洙 開學 七月五日

二、各大會參加與否의件

가 光州南朝鮮庭球大會男女維持大會 (否決)

나 高敞庭球大會 (否決)

다 木浦少年少女雄辯大會 (否決)

라 光州靑年會創立五週年紀念庭球大會에는祝電만을하기로可決

三、詩律大會의件 準備委員으로鄭寅秀、金斗玉 崔鐵三氏에게一任할

四、基本財産造成의件

[illegible] 國有地拂下問題와元豐病院事件의付託을受하야 繼續할事

五、[illegible] 氏로執行委員을選擧補缺

密陽에治法說明
兩團體幹部에게

密陽警察署에서는去二十九日午前十一時에密陽青年會幹部一同과思想團體인五六會會員一同을招請하야治安維持法을說明하고此法에違反치안키를바란다고陳述하얏다더라(密陽)

龍岩浦의 男女雄辯大會

去二十六日下午八時半에當地禮拜堂主催로男女雄辯大會를天道敎宗理院에서開하고黃錫演氏司會下에七人의演士가各各雄辯을吐하얏는데審査員의評判으로左와如히當選되엿다더라

一等金又悅君 二等崔日峰君 三等成錫煒君(龍川)

海南에서 新興青年會創立

去二十八日(日曜)上午十一時부터海南新興靑年會創立總會를當地文化普及會館에서開催하고議事를進行한後下午三時에閉會하엿는데當日會員은三十名이엿고被選된委員은아래와갓다더라

曹龍煥、愈錫洪、金在文、李鍾珉、金珍求、孫在元、尹柱汶(海南)

襄陽郡民會 執行委員會

去二十七日午後二時에襄陽邑南廳里鑛組合倉庫內에서開하고左와如히決議하엿다더라

一、公會堂建築圖面及設計書作成을郡廳當局에委托할事

二、郡民會錄을印刷하야各會員에게配付할事(襄陽)

靈岩少年總會

靈岩少年團에서는去六月二十六日下午五時에同會館內에서第三回定期總會를開催하고團長曹圭元君의司會下에團員一同의團歌合唱으로開會하고順序를따라事業報告와會計報告가잇슨後任員改選에드러가左記와如히選擧하고同下午八時에無事閉會하엿다더라(靈岩)

顧問金宇根、曹秉喆、崔判玉 金俊午、金喜錫、金萬瑕 團長曹圭元 副團長韓悅相 幹事金俊文 第一區隊長申海慶 副隊長金俊文 第二區隊長朴東喆 副隊長曹永石 第三區隊長河憲勵 副隊長金相浩

南朝鮮 少年庭球大會
八月初旬咸平에서

本社咸平支局主催와咸平青年會後援으로咸平에서開催하는南朝鮮少年庭球大會는每年一回式少年運動家의鍛鍊을試驗하야만흔効果를어더오는中벌서第三回로오는八月八、九兩日開催하는데仔細한事項은追後發表할터이더라(咸平)

原州에서 本報讀者慰安

本報原州支局에서는去二十八日에마츰新派連鎖巡廻劇團一行이來原함을期하야原州稲越便擴草倉庫에서本報讀者慰安演劇을興行하엿는데大盛況을呈하얏더라(原州)

金陵青年會
特別會員臨時總會

金陵靑年會特別會員의臨時總會를去二十七日午後八時에同會館上에서開催하고任員을總改選한바執行委員十五人中常務執行委員七人은如左하다더라

高德煥 石泰衡 李永局 [illegible]

[illegible] 에서는去二十五日이同校創立滿十週年의記念日임으로 [illegible] 敎師 李正模 李鳳錫 文東休(金泉)

咸平青年會 月例討論會

全南咸平靑年會에서는지난二十八日午後에該會館에서月例討論會를開催하엿는데演題는「우리의理想을實現하라면物質이냐? 精神이냐?」이엿다더라(咸平)

豊山少年雄辯
盛況裡에閉會

慶北安東郡豊山에서는當地少年會主催와新興青年會와本社豊山分局의後援下에少年雄辯大會를 [illegible]

五月會가不穩하니 名稱을變更하라
井邑警察의妄言

全北井邑邑內에思想團體인五月會가創立된것은旣報한바어니와何等理由인지그名稱이不穩타하야同郡警察署에서改名하라는 [illegible] 告함으로該會幹部들은이에對하야論議가紛紛하엿스나結局名稱을變更하기로 [illegible] (井邑)

清州少年野球
盛況을豫期하는

旣報＝清州靑年會主催와東亞本報南淸州支局後援으로七月四五兩日開淸州公立普通學校運動場에서開催할豫定인全淸州少年野球大會는벌서多數의參加者가잇서實로空前에盛況을豫期한다는바各團選手들은每日猛烈한練習을繼續中인데果然最後勝利의優勝旗가어떤團으로도라갈것인지一般은자못興味잇게기다린다하며아즉加入치안흔團은此際에至急參加할것이라는바抽籤은七月二日午後五時에開催할터이즉參加한各團에서는立會者一人式을要한다더라(淸州)

鳥致院公普紀念

忠南燕岐郡鳥致院公立普通學校

平壤에 少年斥候誕生
少年界의新運

平壤에는아즉까지少年斥候隊가無하야一般의遺憾으로생각하든바平壤基督靑年會에所屬된少年十餘名은自發的으로 [illegible] 少年斥候隊를組織하엿다더라

少年斥候隊指導者 金鼎七 部命和 同隊長 林賢吉(平壤)

高敞高普校移轉

高敞高普校는去十九日金曜에校舍를村里新校舍로移轉하얏다더라(高敞)

◇寸鐵◇

【永興】永興郵便所員白某는當地面書記李某가通話를請할時에「하게」하엿다고交換에應치안다가結局「쓰드라기」가일어낫다고 聞햇곳이업서젓스니問題는그만인가

【洪原】景浦停車場은咸鏡線開通前에는一個草屋도업든곳인데汽車開通된後에는매우繁昌한村落停車場이되야賭博事이第一場이란말을들엇는지

【原州】原州青年會館에는年會看板은부처보지도못하고난데업는原州商業組合創立看板이부헛스니維持有巢에維鳩居之인가

【義州】近日에는寄附하고돈내지안는流行病이잇는지義州에도寄附하고도돈내기실혀하는假有志가잇다假裝은하얏스나面皮는그대로

謹告

從來朝刊本欄에記載하든仁川期米後場記事는一層報道의迅速을圖키爲하야當日夕刊에前後場을同一히揭載케되얏슴으로朝刊所載는廢止함니다

朝鮮日報社

本社全州支局主催 讀者優待診療券

場所 全州本町二丁目 全州醫院
期間 七月一日부터三個月間
診察料 無料 (往診은半額引)
藥價 半額引
診療券 本報讀者에限하야每人前에五枚式本社全州支局에서交付함

勞働者慰安特別音樂大會

日時 七月四日(土曜)午後七時半
場所 鎭南浦新興里監理敎會堂
入場無料 但所定入場券을持參하는이에게
主催 朝鮮日報鎭南浦支局
後援 鎭南浦新興靑年會 勞働親睦會

鐵原邑內大火

十三戶全燒、損害數萬圓

중국인음식뎜에서발화하야 세시간후에야진화가되엿다

일일오전세시경에 강원도 텰원읍내서변면 관뎐리(鐵原郡邑內西邊面官田里) 중국인음식뎜(中國人飮食店)에서불이나서부근에잇는 조선인가옥 십삼호를 전소하고 세시간후에야 겨우불을 욕셋는데 그부근은인가가 됴밀하야일시 대혼잡을 이루엇섯고 원인은방금 됴사중이며 손해는 비상히만하 수만원이상에 달하리라더라(텰원뎐보)

乘客의負傷으로 列車를停止

서정리역에서

일일에 대뎐으로부터 경성으로 가는경부선 데십삼호렬차가 오후세시 오십사분 서정리(西井里)역을떠나마츰 속력을발하야 진행하든중 삼등객차에탓든 이십세남짓한 조선부인한명이 급작이 출입구로나와서 밧비뛰어내려오다가 곳혼도하야 눈어진것을 렬차의승무원이 발견하고 즉시 신호를하야 진행하든렬차를 정지하고 또치나려구호코자할에에 서정리역에서도 역원들과 순사가뛰어와서 응급수당을행한결과 그녀자는 곳깨여나서 자긔발로걸어갓는데 이녀자는 그부근진위군고덕면 당현리(振威郡古德面棠峴里)일번디 남뎨목의장녀 뎡이(南帝福長女貞伊)라 하는 스물한살된 녀자로 서정리역에서 나릴것을 이저버리고안젓다가 졈결에 뛰여나림이라는데 몸에는 상처갓업스나 매우 골은모양임으로 립장하얏든순사에게 넘기고 렬차는곳떠낫는데 그로인하야 약 륙분동안이의뎡거를하엿다더라

主義者佐野學이 京城에서同志와密會?

지난사월민중대회때에 고진정도와밀회하형적

일본경시텽에서는 일본공산당사건(日本共産黨事件)의연두자로 경시텽주목의초뎜인 좌야학(佐野學)근등영장(近藤榮藏)등 두명이 지난사월에 경성에서열린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全朝鮮民衆運動者大會)당시에 비밀히 경성에입경하야 일본서온고진정도(高津正道)와밀회(密會)하고 두명은즉시 아라사막사과(莫斯科)로 간사실을 탐지하엿다는바 방금좌야학은 막사과대학의 일본어교수로잇고 근등영장은 편산잠(片山潛)씨의 비서(秘書)로 잇슴으로 테포치못하는데 좌야학은데정십팔년(공산당사건)에 연루된 관결이 시효에걸리는 해)에 떳떳하게 일본으로도라오리라하며 근등은생긴일본에는아니도라오리라한다(동경뎐보)

尋常校長訓辭로 潭陽人士憤怒

일한합병은협의뎍이아니오 강탈한식민디인것을알라고

전남담양읍내(全南潭陽邑內)담양심상고등소학교장(潭陽尋常高等小學校長) 좌등경작(佐藤耕作)은지난륙월이십구일오전 조례(朝禮)시간에그의학생전부에게대하야 너희는 조선이우리일본과 합병한것이 협의의결과로된것이 아니라 강제로빼앗어 식민디로 만든것이라 결코대화족(大和族)으로서는물론다른사람에게 지지아니하는것이 본청이매 더군다나 일본사람으로서 식민디 백성인조선사람에게 양보하지말고 어기기를 각오하라는 교훈을한일이잇다는데이말을들은 그고을사람은 물론이오린근 읍사람들은 아마도 이것이일본정치의비밀이라우리로도각오에 각오를더하야결뎍히대항하지안흐면민족뎍권리로도우리는다죽은것이 분명할뿐아니라 보통학교장(普通學校長)들도일본인이 아니지마는더욱그대로볼수업다하면 이것이 이제야깨달은바는 아니지마는더욱그대로볼수업다하야여론이비등하다더라(담양)

『훔치』를撲滅한 正義團員公判

검사의구형이벌금

긔보한바와가티『훔치』배를

橫財로 實損財!

엇더리업서 속고나서병이낫다

충남론산군 로성면내사리(忠南論山郡魯城面內舍里)에사는 윤치(尹致)... 또여죄가잇는듯하다더라(원산)

導火線은 勞働者의慘殺

학생이중심으로일어나자 사억만대중이일제히분긔

中國排外運動의眞相(二)

지난봄이래로 상해(上海) 청도(靑島)봉텬(奉天)등디각공장에서 전후를계속하야 대규모뎍동맹파업이 속출됨을따라 아직것자본주의(資本主義)가발달되지못한 중국에서도 점점계급뎍대립(階級的對立)이 현저히 나타나게되엿다 동시에 이계급뎍대립인 상대방즉자본가대로동자(資本家對勞働者)관계는마츰내외국인대중국인(外國人對中國人)투쟁문뎨인것이 필연뎍으로판명되엿다 웨그러냐하면스트라기를 연출한 공장의자본주는 모도다 일본기타 외국인이엇던까닭이다 이리하야 과거외국인에대한 정치뎍압박의 자극(刺戟)이도하든 중국로동계급과무식계급(無識階級)은 그날그날의 생활보장을 위하야 당면한 경제투쟁에서 발뎡하야새로히 민족뎍감정(民族的感情)과 애국뎍의식(愛國的意識)에 눈을 뜨게되여갈사록 그사상은 룡후하여젓나니

그래서 외국인은보도다그들의 뎍(敵)으로 인식(認識)되엿다 따라서 형식으로 나타낫든 파업운동은 일시일시로 다소의 타협조건(妥協條件)을 가지고 소위해결이 되엿다고하나 리면으로는 갈사록공장주측과 로동자측사이의 감정은 험악하여젓다 그러고 파업선동의 혐의가잇는자에게는 더욱학대가자심하여젓다 그리하야 다소간이라도 **량방의** 충돌은그칠날이업것다 그러고 그중의결과는한사람식 두사람식 해고(解雇)를식히는 것이엿다 이리하야불안과공포의 긔분이쉬일새업시 각공장을휩싸고잇든 지난오월십사일오후이다 상해에서 일본인의경영인 OO사창(OO絲廠)에서 중국인직공 고정홍(顧正紅)과직공감독으로잇는 일본인사이에 사소한언쟁니 시작되엿섯나 한참쌈왕쌈래가 조치못하게되매일인

감독은 직공이반항한다고 마츰내 몸 가지고잇든 륙혈포로 을견누엇다 『한노소리 한마디에 그의생명은 무참히 그자리에서 끈허지고 말엇다 그러나그와가티 참혹한 원한의흉풀은 죽음의소식은 금시텰벽(金城鐵壁)으로 포위하여노흔일본공장주의금력(金力)과 위압력(威壓力)을 놀파하고 담밧그로 흘러나오기가어려웟것다

그래서 텬인이다가티용서치못할 그사실은 그만암흑가운데서 남모르게 살아질번하엿다 그러나그억울한 피의우름소리는 틈으로 틈으로 새여나와 폭발성(爆發性)을 띄고잇든민중의속으로흘러드러갓다 데일착으로 그소식이현재 중국사회에촉각(觸角)지럽되여잇는남방대학(南方大學)학생의귀에드러가자 그들은그시간으로 조금도주저하지안코즉시

사실을 권과하기에 착수하엿다그리하야한사람으로부터 두사람에게 이러케그소식은 불과얼마되지아니하야상해전반의고막을놀래엿다 이에여디업시 분개한 학생단은 누구보다몬저 남방대학과호강대학(滬江大學)학생이 중심이되여가지고 참살당한직공 고정홍군의추도회(追悼會)를 륙월이십륙일에거행하기로 되엿섯다 당일은

학생기타공인등수만의대중이모혀 오직한사람의로동자의 죽음을위하야 감개무량한눈물을 뿌리게되는동시에평소에품어오든 일본인에대한반감과분로는잇업시간장되니 실로일개의 직공을 생각하야 그만침장엄한 추도회가잇기는인류의력사가잇슨후처음되는 새긔록이엿다 그회합은과거에일즉듯지

못하든 그만치 상상이외로 차항을나타내게되는 동시에그리면에는 역시위한음모(陰謀)와계획이숨어잇섯스니 그것이곳오늘날사억만대중이일졔히 리하야권세제인류의마음을조리게하는 배외운동(排外運動)을 쓰으러온것이다 수만의군중은 한사람의 죽음을 우는그자리에서그죽음의 원인을 추구(追究)하는때가다른 구엇을엇고

절실히 늣기게되엿스니 그것이곳공장주측이로동자를 살해하엿다는것으로경제투쟁이인것이아니라 일본인이중국인을 정치문뎨국제문뎨화(國際問題化)하게된것이다(계속)

舌禍吳氏押送

함흥검사국으로

남내홍원읍내 오긔섭(咸南洪原邑內吳琪燮)씨는 지난이십일오후구시부터 개최된 동아홍원지국주최 웅변대회(東亞洪原支局主催雄辯大會)의변사로출현하야 자본주의국가의악정책과주국동맹파업에대하야 일반청중으로 하야금 흥분을이르키여우리가는바수소리가장내를진동하얏든데 경관은 수삽차주의를부르며 청중은매우 자미잇게 되엿든판에 변사는 검텽현대의

관사 吳琪燮의심리에각각열렬한당변이 잇슨뒤에검사로 부터 피고 주경문(朱敬文)권순조(權順祚)는각각벌금삼십원식에 김민규(金敏圭)박용석(朴用石)황정련(黃正連)김경환(金景煥)은 각각륙십원식의 론고가 잇섯고 따라서변호사김긔정(金淇正)씨의변론이잇섯는데 판결언도는 오는칠월륙일이라더라(홍원)

삼척출파한정의단원(正義團員) 의공판은지난이십구일오후 시부터 부산디방법원동영지텽(釜山地方法院統營支廳)에서 개뎡되엿는데 뎡각전부터 모혀드는 방텽객들은 장내장외에 립추의 여디가업섯고 특명의피고는 오후

元山에도惡魔女

남의어린딸을다려다가 돈을밧고팔은사실발각

山東省出生의中國女

원산부관교동(元山府館橋洞)김례근(金禮根)의처로잇는녀 (盧姓女)(四二)는 중국산동성(山東省)으로서 현재부내명석동 백십일번디파지홍(波之洪)과공모하고 지난달 이십륙일에 적전면와우리 송종근(赤田面臥牛里宋宗根)의장녀(三)를 양육하겟다 하고 다려다가 명석동에사는 중국인에게 삼십오원을 밧고 팔는 후그날안변군 학성면락거리 박재근(安邊郡鶴城面樂居里朴在根)의 셋재딸(二)을 또그와가튼수단으로 다려다가 권긔중국인에게 이십오원에 팔는 사실이 발각되야원산경찰서 에서인치 취됴중이라는데그외 에도 또여죄가잇는듯하다더라(원산)

어떤사람 ... 에걸리어 현금삼십이원을 빼앗기고집에도라와병이지나서누엇다는데 그자세한말을 듯건데권긔윤씨는그날에고치(繭)를가지고본산 잠업공동판매장(蠶繭共同販賣場)에가서 삼십이원금을 밧고 팔어가지고 자긔집으로도라오는중로에

어떤사람 세명이나타나 동행하게 되는바 얼마쯤오다가 사는누엇이라고 말한뒤에 윤씨를향하야 술을먹으려가자고 하명을말하매 그세사람들도 어데 청함으로 윤씨는자긔의 주소청권긔 세사람이 윤씨에게게인사를 면서 초면에매우정답게 굴기로 윤씨도 여러번사양하다못하야 주덤에들어가서 가티술을먹고 잇는중인데 그리함께에 엇던사람 하나이또들어와서

지나가는 사람처럼그엽

奇特한寄附와 애담은追悼會

죽은동무의귀한긔부에 추도회와열동은울엇다

안주성내청교리(安州城內淸橋里)김진성(金振聲)씨의장녀 김경숙(金貞淑)(三)양은 우연한병으로 지난이십일에 앗가운일생을 마쳐엇다는데 죽음의길로넘어가는 괴로운순간에 눈물어린 가족을향하야 간신한소리로 사년간이나 푼푼이저금한돈 오원이십전을 제가사랑하는 동무들이잇는 안주련도교 소년당에긔부하라고 최종유언을하엿다는바 이소식이 지난이십팔일전긔소년당주최의동양추도식에 참석하엿든일반 뜻에감동하야 당원일동은 물론이오 추도회에 참석하엿든일반 인사와안주공립보통학교녀생도 일동은 에달은 눈물을자아내엇다더라(안주)

사실을 일일히말하게 되엿다 이때에 립장경관은 강연중지시킴으로 청중은매우、유감을늣기고 말엇는데 즉시오씨를검거하야가지고 붉은한연사가잇다고 십일동안이나 홍원서유치장에두고 취조하여더니 지난삼십일 오전일곱시이십륙분차로 함흥검사국에 압송하엿다더라(홍원)

횡재이니

평균분배하자

허장간안꿧서가 나갓는데 그사람이안젓든 자리에무는 봉지(封紙)한봉이 잇섯나니 그중에는 돈이... 로그세사람중 한명이 그 회봉지를주어보는비 윤씨눈에도 분명한 돈봉지인데 뗏천원가량이 되겟승으로 속으로 놀랬을마지안엇다 더욱히그세명은 조용하는낫빗트로 윤씨를대하야 말하기를이것은우리네사람에게생긴 것이니종유한곳을 차기 위하야 하고 다시말하기를 이돈을이자리에서 분배하는것이 조치못한 가지고집으로 가면우리는 래일 차저갈터이라하며 잔돈을술 일이잇는데 우리가아는바와 가 위선윤씨당신이이돈봉지를마터 러윤씨당신이오른고치판돈삼십

◇평양에새로탄생한소녀척후군◇

계산하야

갑것다 고함으

여원이잇스니그것을위선우리에게 취대하야 주면래일봉지돈을 배할때에 론윤씨는 돈봉지돈을 자긔가갓 거되는것을 밋고선선히 허락하고그자리에서 삼십이원을 내여주고자긔집으로 도라와 마음여하 도선긔하고그것을 열어보니조금도 돈봉지를 떼어보니 돈은어데로 는그뻐야비로소엇던놈의최면술에 걸린것을알엇다는데 더욱히 윤씨는원래빈한한

사람으로

이러엇더리업

는뒤임에서 써이와가티적지안 혼손해를보는것을 생각하니 아이를쓰다가 병까지 나게되엿 다더라(공주)

海州圖書館은 吳服店出張所化

부면장은모호한답변을하고 시민은학생들까지크게분개

해주군해주면(海州郡海州面)에서는 벌서부터 도서관(圖書館)을건축하기위하야 의빈 면협의원(面協議員)의여러가지준비와 또는 부호 고류장단(故劉章단) 의긔부로써 면사무소 엽헤다가 일본식으로이층집세우고아래층에는 소방긔구(消防器具)를두고 위층에는도서렬람소(圖書閱覽所)를만들어

지난륙일 부터개관하야 일반시민에게공개하얏든바 개관초부터 일본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무례하고 란잡한행동을하야매우말성이되든것인데지난이십팔일에는 큐작니 삽월오일오와가티 책상을 버려부쳐고 렬람소(閱覽所)라는광고를 떼여부쳐고 렬람소(閱覽所)안에수백종의물건을 가득히차아노하서 도서렬람을 하고자갓든

사람들이 크게놀라는중 시에 분앙을이기지못하야 면사무소내로들어가서 면장을 대하야말하고자하엿스나 면장은 어디가서못보고 부면장박창진(朴昌鎭)씨를맛나 엇지하야 도서관에다가 개인의영업상소를 만드러 노핫느냐고 그리유를 물은즉 슬슬피하야 다라나며 나는모르겟습니다 면장이 한일이니가하고얼골이붉어짐으로보다 시질문한즉 아마물것을

팔어주기 는소방조합에서 하는모양이나 이것도면사무소관할이니까아마팔어주면얼마간긔부가잇는것입되다하얏다는데 이것을 알은일반시민은물론 학생들까지라도큰 분개하야선후책을강구중이라더라(해주)

所謂宣布師

靑陽에서逐出

돈거두러갓다가 주먹만맛고말어

전북익산군오산면영만리(全北益山郡五山面永萬里)에 원적을두고 충남대뎐진정원선포사(忠南大田眞正院宣布師)라는 직임을가진 량홍순(梁洪順)은 포교할서류와 집금할규약을 가지고 지난달이십팔일에청양(靑陽)을 향하고나서는중

청홍적백 색에바둑개가죽모양으로된서류를 얼룩덜룩 한보통이에 싸서들고머리에는도 래방석가티큰갓에먼지가켜켜안진것을 쓰고때목두루마이를 입고 벌통가튼행전을정강마루에 치켜치고 발에는 당치안흔초 상상제신는 웃신을 단단히들메이고 입에는 기리가한발이상이나되는길은 담배써를물고 약주

술이잔득 취하야얼골빗이 대초빗이되여 강낭갈지자거름으로 인지락주이지

專賣局員毒牙와 北下面民의離散

남부녀대로협누를뿌리며 사방으로뎡처업시허터저

전남장성군 북하면(全南長城郡北下面)은산간벽디로 약간의논(畓)을 제한외에는 다만담배를 심어서근근히 호구나하여 오든것이외에도 소위연초 전매국(所謂煙草專賣局)이생겨나며면초를경작할수 업게되야 생활의곤란을 늣기는면민들은 당국에서 선전하는 생나무심어도 역시토질이 박하야

되지아니 함으로부득이 그대로 굶어죽으나 죄를짓고죽으나 죽기는일반이라는 생각으로 담배를 심엇든바 작년부터범칙자로 검거된것이 수백건인데 복역하는자도 만호나 결국은그 무서옵고 독한형무소에가서 징역할일을 생각하야 남부녀대하고밤이면 산을 타서 도망하야간

不正한面技手

잠견공동판매장의 권표를위조하엿다

경북문경군가은면 농업기수 김

夏至致誠後에 普天敎內의波瀾

돈이잘들어오지아니하야 면임과강임이만히잇섯다

필경은『이놈어듸보자』

보천교에는일년에큰치성이 여섯번인데 이치성때마다 륙십방주이하 각책임자들이 치성힐돈을 가지고오는규례이오 돈이만약 잘 드러오지아니하면 정성이 부족하다하야 그책임자에게 허물을 잡아가지고 면임(免任)과 강임 강임(降任)을하는터인데 금번하지(夏至)치성에도그와가튼일이잇서서 원동(原洞)방주네게 호소하는자와『이제는엇더케살가』하고 울며나가는자와 술을먹고 소리를지르며『이놈어듸보자』하는 자들이 잇서서 지나간하지일해 오구시경에는 소위 중앙본소가 한참동안 수라장을 이루엇섯다 는데 그중에면임된자는 여섯이오강임만자가 네사람인데 그들은참햇네못햇네하며불평과비난

商業失敗로 自殺코자自刎

방금생명이위독중

함남영흥군진평면차호시(咸南永興郡鎭平面遮湖市)조덕간(趙德艮)이라는자는 지난이십칠 일밤에어떤자한명이 조고마한칼로 자긔의식도(食道)를 몹시는코고만 러는것을 발견하고 응급처료를 하엿스나 방금 생명이 위독중이라는데 자세한 말을드

格鬪後逃走犯

징역오년에언도

지난오월십삼일오전네시경에원산부내(元山府內)석우동리명석근에서 원산경찰서원과 대격투를한후 도망하얏든 주소불명한 강도권파자 리영화(李永和)(?)는 원산경찰서에 테포되야 원산지청(元山支廳)에서가택침입절도 공무방해 상해죄로 취됴를바든바 지난삼십일에 공판이되야 징역오년에 판결언도를 바닷다더라(원산)

身長은 一尺八寸에

아들은네명식

쥬국인난장이

금년삼십오세의청년으로서신장은겨우일척팔촌이 오다리기리는여섯치로 실로동남만한 난쟁이한명이 올면이삼십일에 부산으로부터대구(大邱)에나리여도립대구병원으로 드러가서 진단한결과에 의하면 그는중국광동성(廣東省)출생의 섭복송(葉福松)이라는중국인인바일행이 단하얏는데 그는중국광동성(廣東省)출생의 섭복송(葉福松)이라는중국인인바 공문이에 눈써가 나와서 ○리가리되엿고 고향에서 아들네명을 나헛섯는 데한아이는죽고 셋아이는 건강하게잇다하며 재산도 상당한사람이라고(대구)

脚戲쓰리紛糾

主催者인繁榮會를非難

간부들의잘못으로문데발생 일반에서대단히분개하는중

함남 홍원군(咸南洪原郡)령무(靈武)번영회주최로단오(端午)일을리용하야 각희회를 개최한 다함은 본보에 긔보한바어니와 처음날이단오날에는 자뎐차운동과『마라손』으로맛을마치고그이튼날 음륙일에 각희가시작되얏는데 회장신언진(申彦進) 조지협(趙贊協)과간부고롱수(高龍洙)심관 예들게된자가삼십이인이되엿스나 시간이업게되엿승으로

그이튼날 로결승을하게되엿는데 전긔간부들은 비교 든사람들에게대하야래일오전일곱시에시작할터이니시간을위반하는자에게는 결승권이 업게된다고선언하엿다 그러나 그이튼날 영각에륙대(六隊)선수 멧사람이도착하엿스나간부들은 시간이 만히지 자도볼수업더니 시간이 만히지 나서야 간부라고하는이들이 입장하더니일곱시

사십분경 에야간부와경관들이 지금부터 후로오는선수에게는절대결승권을주지안켓다 선언하고 결승권이잇는 삼십이인중 도착한십팔인으로 결승을 하게되엿는데 그쌔에륙대 신포 선수멧사람이왓스나시간 후에온 륙대선수들은 간부들의 선언을듯고 퇴장하얏스며 신포 선수들은 시간후에 도착함으로 구하고

결승권을 간청함으로필경결승권을 주게되야 수권의관람자들은함남(咸南)은조선천으

이르키게 되엿승으로동간부들은 반장하얏는지 륙대측에대하야 자긔들의잘못을 말하며신포와가티 상을주겟다고 하얏스나 이럭저럭말만하다가 해결이못되고 허여젓는바 그날저녁에 륙대측에서는 해결하기위하야 삼사십명이 간부를차저갓스나 그들은 술이취하엿승으로 그들의술

쌔이기를 기다리든지음에 경관에게 해산명령을 당하엿는데 륙대측에서는 대단이분개하야 이일이바로 해결이못되면륙대를 중심으로삼는 영무시장에서 시량도아니사겟다 하며 일반은 금년가티 공황한쌔에사백여원이나되는 거액을 모하서 무슨할일이업서서 씨름을 시키며 식킨다면 규측잇게하거나 말정을만들어 문뎨가되게한다고 비난이자자하다더라(홍원)

사주엇고 그돈너마지기 에대한 소작료는물론하고 디세까지 일이긔를다코박코박 주엇스며 금년이월에는 직접대구에 싸리를

서마지기 소작권 어더준다는 것은일어타 말이업승으로 디주 리장우와 그차인들의 비루한수단과불법행위가일반의말거리가 되엇다더라(초계)

夫婦共謀하고 사십원을사긔

김포군하성면 석탄리(金浦郡霞城面石灘里)이백륙십칠번디사는뉴유산(柳有山)(四十)이라는자는 자긔안해정대아긔(鄭大兒其)

奸惡한差人

소작인의재물을

긔회잇슬때에다착취

합천군가야면청귀리오주배(陜川郡伽倻面淸溪里吳周培)는원래빈한한소작생활을하야오든바작년유력자로부터 소작권을 가졋든 봉산면 봉래집에 서 편중범 (片仲範)에게 술삼십칠원어치를 사주고또그곳으로부터 머구까지 가는자동차삭으로 돈오원을준후에다행이논

네마지기 의소작권을어덧스나 또작년유력구월에 일으려 금년소작권도 완전히하야준다하고소작권교부료(小作權交付料)라는명칭으로 돈사원을 청구함으로 오주배은 미래를뒤하야 업는돈이나마 인의말이라괄시할수업서남의돈을 오푼리자로 어더주엇고또 작년 음력십일월 이십일에합천군가 사금레라는 사람의집에서 금년 농사는 든든히 해줄터이니 음사달다함으로 역시 부득이하야술일원팔십전어치를사주엇고 그래도 편중범의 용심이괴상함으로또작년음력 십이월이십오일에조석(草席)한개와원사십전

남의현호

에잇다가도망

곳을 열수업는자가 부지기수라하며 면당국으로서 호세를밧기여얼마나 곤난한지 징수바리고 도망하야

하야 간다더라(장성)

해가만허서그들의참상은날로심하는동시에 가진폐일에는 진매국원의 소위밀양(密陽)이 잇서서 일변으로범측자의밀고를

소작이나

할가하고자긔

가쉬디주리장우(盧大周李章雨)에게 일원오십전짜리 생선두머리까지 사주엇는데 금년오월에 일으려서는 엇지한까닭인지 또 고소엣지만낫다하야 다른사람에게 마지기로인하야 또금년오 소작권이 엿득엿득하며 그쓴너 일십사일에 대구리장우차인 김 귀롱(李章雨差人金基東)의집에 서 전긔오주배은 리장우의토디 를다든부자에게사게하야영구히

수일전에

자긔안해와공

려여사람에게피해가만흠즉 다른남편과 자긔신실 남녀는 김포경찰서에서 엄중한 라는 로인에게현금사십원을 편취한사실이발각되어 현금 신리(新里)사는리화련(李和天)모한후교묘한수단으로를

다른데로

피신을시키고

모한후 권긔정씨는 자긔남편과 살기가실라고 다른남편을 구한 다고권파하바피해자리화련은이 말을듯고 개청엇던 자에게소개 를하얏든바그녀자의말이남에게 빗이졋잇스니 돈사십원만 먼저 주면 빗을갑고가겟다함으로 리 화련은 그말을고지듯고 현금사 십원을 그녀자에게 주엇든바 권 긔류유산은자긔안해를

男便실흔 病이잇느냐

두번재서집을가서 남편이또실허말청

지난이십팔일밤경주(慶州)경찰서에 경주군경주면(慶州郡慶州面)서부리에사는 박모씨(朴某氏)가 여매우떠들어대이일이잇섯는데 그자세한내용을 드른면 경주군천북면동산리김정순(慶州郡川北面東山里金貞順)(二二)이라는 녀자는 원래 경주군 강동면 양동리 리하강(李河江)과 결혼하얏든바 자긔의본남편과리혼을하고 집에도라와서 잇든바 지긔고모 의중매로경주군경주면도동리손 잡득(慶州面東里孫岑得)이라는 사람에게 개가를가서 살든중불과사흘이 못되야서 손잡득이는

인처한후 봉동하엿든바 그이튼날아츰에 이학생의정신을 진단하여 전후사를보고 화학성과 이학생은 충남본산군 두마면룡동리 (豆磨面龍洞里) 최영선(崔永善)의장남으로 경성모중등학교 사학년생인 의수(義洙)(?)인데 (三)인데 일천여일전에 안질(眼疾)이나서 래뎐(來田)으로 고치려갓다가 이십팔일 에긔차를타고 도라오든중 차중에서 발작덕색정광(發作的色情狂)을 이르키어 무의식덕으로 조치원에서

하차하야 전긔의행위를 한것이 판명되엿승으로 부득이보호를부치 경성으로 보내는동시에주의를 부탁하는것 이라하엿더라

藍島에染病

고양군독도면 독도리(高陽郡纛島面纛島里) 백삼십오번지한준이 (韓俊伊)(?)는지난십이일부터 병이낫는데 목촌(木村)의사에게진단을바든즉과지난이십륙일 에장질부사병으로판명되엿다고(고양)

少女溺死

지나간이십구 일오후네시경에 경주군 경주면 로동리(慶州郡慶州面路東里)사는 울속에아이가 싸져죽은일 이잇서서 일시는 소동이되엿는 데 죽은아이는 장무선(張武先)의 이라는 금년열두살된 계집아이 로서 얼마전부터 학질병으로신 유하든바 그날도 마츰볼어누엇 든데 집안사람들은 전부일하러 나가고 업는틈에 나와서울물에 써저죽은것이라는바그아이는 여 섯살되든해에 어머니를일코 그 아버지되는장명호(張明浩)는인

商店專門窃盜

원산부

내중뎡과봉뎡(元山府內仲町、本町)각상뎜진렬관으로 다니며교묘한수단으로 물품을 절취하야가는일이 빈빈하야원산서(元山署)에서는 크게주목중 지난달이 십구일에 본뎡통에서 철도권과 륙범인권권면송하리 하흥락(河興洛)(三十)을테포하야 인치취됴한바 다수의 물품을 절취한것을 일일히자백하얏다고(원산)

죽엿다더라(경주) ... 셋재적음이 세거죽은것이라는바그아이는 세살되든해에 어머니를일코 그 아버지되는장명호(張明浩)는인

三防에火災

지난달이십

륙일 오후두시경에 경원선삼방역 (京元線三防驛) 팔십륙번디 박석권(朴錫權)의집에서 불이 닐어나는 동시에 동륙호의옛집 히붙어 그불로인하야 김광련 (金光仁)의 집세채를 삽시간에 태여버렷는데 그원인은 전긔박 석권의집 변소에다가 불잇는재 를내여 버린것이 바람에불리어 불이일어난것이라하며손해는대 략일천수삼백원이라더라(원산)

發作的色情狂

중학생이

긔차에서내려서 려관부인을능욕

삼십일오전에시내종로경찰서에 는조치원(鳥致院) 경찰서로부터 아래와

가는주의 통지서(注意通知書)가이르러보는자 듯는자로하여금포복절도(抱腹絕倒)케 하엿다

이십팔일 오후일곱시사분에 북행렬차(北行列車)가조치원 역에다차 렬차로부터 청년학생한명이 나려죽시 뎡거장압 조선려관서상순(徐相淳)의집 으로 드러갓는데 그학생은려관 관대문에 드러서며 죽시서씨의안해김숙자(金淑子)(三二)를 이상히 한참노려봄으로 김숙자도 그학생의모습이 자긔친 뎡동생과 비슷함을 괴이히녁 여남편서씨를 불러가지고 그 학생을 자세히 살펴보앗스나 결국 동생은안임으로 도로나오고자하든중 불연 그학생은 나는듯이 내다라 치마자락을 휘여잡고 강간을 할긔세를보 임으로 김숙자는 짬짝놀라질 밧그로 뛰여나가며 구원을청 하자 길거리에잇든 사람들이 일제히 모혀드러 또차나오는데 그 학생을 무수구타하엿는데 그

회파람

◇진위군병남면평택 리사는허정(許旭)이 라는륙십여세되로인 은아들이둘식이나장 사를하는데자긔는생 활이곤난하야큰아들 집에나작은아들의집 으로다가면 아들들이 다고한다▲그런데 더욱이 그의 안해는 작은아들의집에서 살면 서 남편이가면아들과가티 학대 를한다고 돈업는사람을 회대하 는것이 이세상에서 가장충한일 인줄로 원반이 아는것은사실이 지마는▲자긔아비를 돈이엇다 고자식이 학대한다는것은 동물 는아비보다 돈는이의 주먹이들 먹들먹한다 더구나 가튼처디에 그의안해가가중하다